

#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 관계의 변화

## The Changes of Neighbor and Family Relation by Joining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류 경 희  
성균관대학교 가족경영·소비자학과  
교 수 김 순 옥

Dept. of Child and Family, Changwon National Univ.

*Full-Time Lecturer : Ryu, Kyung Hee*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

*Professor : Kim, Soon Ok*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br>이웃과 가족관계의 변화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changes of neighbor relation by joining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are as follows. Neighbors who are cooperative members are consultants who advise on childcare and communal parents who nurture children in communal local society. They are also consultants on problems of couples because one can reveal difficulties and troubles in the relation with the spouse easily to the neighbors. They admit gradually that their daily life can also be shared with other families. Living with neighbors extend the boundary of family and form a sound family culture.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ir relationship is satisfactory, they have no need to form relationship with neighbors who are not cooperative members. They regard neighbors who are not cooperative members as 'peoples with different color from us'. Also they recognize exclusive eyesight from neighbor who are not cooperative members.

The changes of family relation by joining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are as follow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ife and husband, both husband and wife take equal responsibility of childcare and that husband gets to familiar with household matt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equality

comes true and parents get to know ways to be good parents. And they neither attach to their children nor bear expansive delusions on their children.

주제어(Key Words): 공동육아 협동조합(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 I. 서론

오늘날은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변화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가족에 대한 열린 시각 속에서 가족간의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하나의 대안적 가족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정 관념적인 기존의 가족 개념에 대한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비슷한 해결과제를 가진 가족들간에 다양한 형태로 협업화하려는 공동체 생활의 모색과 실험이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조심스럽게 시도되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이러한 공동체적 생활의 모색과 실험 중의 하나로서 '90년대에 생겨났다.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가 되었으나, 정부나 기업차원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가족과 함께 해결하려는 정책적 실현이 부족하고, 개별 가족들이 육아문제를 가족이나 친족 중심으로, 또는 기존의 보육시설에 의존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육아의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 개인 내적인 갈등, 가족 및 친족 내부에서의 육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열악한 사회적인 육아 환경에 대한 불만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류경희, 1999), 본능적으로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 3의 대안을 찾게 되었다. 이들이 찾은 대안들 중의 하나가 바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자녀양육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동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 자율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공통의 유대와 평등한 인간·사회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하며,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구체적인 삶과 현장을 만들어 간다(류경희·김순옥, 1999).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인 가족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대안적인 보육형태 또는 육아문제의 사

회적 해결을 위해 결성된 이념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유아교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졌으며(차현진, 1997; 조순영, 1998; 이부미, 1999), 공동육아의 조직과 구조 또는 구성원들의 참여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조합원의 활동과 역할을 살펴보았거나(임우연, 1995), 공동육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공동육아 현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등을 부모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거나(한송이, 1997), 개별 조합원들간의 결합관계나 이해조정 과정, 집단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관찰하여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특성과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다(이창호, 1998).

따라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대안적인 가족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가족단위 차원에서 접근되어져서 공동체적인 생활이 단위 가족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대안적 가족형태의 모색과 실험이라는 전망 속에서 대안적 가족형태의 한 유형인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가 이웃과 가족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공동체적 생활방식 확산의 필요성을 재점검해 보고, 실험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공동체 생활방식의 모델을 수정, 보완하며, 새로운 모델을 생성시키는 자생력을 기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94년 8월 마포구 성산동의 우리 어린이집의 개원을 시작으로 2001년 7월 현재 서울·경기지역에 21군데, 그 외 지방에 9군데가 있어서 총 30군데에서 생겨났다. 협동조합형의 공동육아 방식은 계속 확산 추세에 있으며, 인천, 천안, 대

구, 울산, 의정부, 용인 등지에서도 준비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현재의 30군데의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처한 지역의 특성, 조합원의 구성과 특성, 재정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형성해가면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활기찬 어린이집>은 당시 참여가족 27가족, 아동 수 31명이었는데, 1995년 2월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향력의 두 어머니가 우연히 만나 공동육아에 대한 서로의 관심을 확인하고 준비해 보자고 결의하면서 시작되어 '96년 3월 2일 개원하였다. <활기찬 어린이집>은 부모가 조합원이 되어 어린이집의 설립에서부터 운영, 감독을 하고, 가입비·출자금·보육료라는 비용 부담을 한다. '99년 8월 현장연구 당시 30가구가 조합가구이며, 조합가구 중 한 가구만 사별로 인한 편모 가구이다(30가구에 총 59명의 조합원). 조합원은 대부분 30대이고,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맞벌이가 많으며, 직업은 회사원, 교사,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순으로 많다. 주거형태는 대부분 전세이며, 이 터전에 2명 이상 자녀를 맡긴 가구는 7가구, 1명을 맡긴 가구는 23가구이다. 조합의 아동은 조합원의 자녀들로 구성이 되는데 만 2세부터 6세까지 있으며, 아동수는 '99년 8월 현장연구 당시 총 39명이다. 조직으로는 이사회와 소위원회가 있는데, 부모대표로 결성된 이사회는 이사장, 교육이사, 홍보이사, 운영이사, 재정이사, 시설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인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대표와 이사, 정관의 개정, 출자금, 시설 및 보육료, 원장과 교사의 선출과 해임 등을 전체 조합원과 논의한다. 기본 출자금의 규모는 공동육아의 터전에 1자녀를 맡긴 경우 430만원, 2자녀 이상 맡긴 경우 550만원으로 하며, 가입비는 40만원이다. 월 보육료는 12개월에서 18개월 아동의 경우 41만원, 19개월에서 26개월 아동의 경우 36만원, 27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의 경우 31만원, 37개월에서 60개월의 아동의 경우 28만원, 61개월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의 경우는 26만원으로 개월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활기찬 어린이집>과 같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자녀양육을 가족간에 함께 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가족 안에서의 기본적 연대감, 공동체적 사랑, 이웃간의 유대를 회복하며 개별 핵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하나의 대안적 가족형태이다(류경희·김순옥, 2000).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참여가족들은 같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육아라는 공동관심사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공동공간인 터전에서 가족간에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 교류를 해 나간다. 관계교류를 통하여 비 혈연의 조합원들 및 가족간에 情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이것이 집단에의 애착으로 확대된다. 그리하여 나, 내 가족보다 우선적으로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집단적 시각을 갖게 되고, 집단에의 동일시를 통해 동화하게 되며, 집단의 힘을 의식하면서 집단에의 강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해 나간다(류경희·김순옥, 2001).

우리 나라에서 생겨난 이러한 가족간의 공동체적 생활은 단위 가족생활에서의 다음과 같은 변화 기대를 갖게 해준다(류경희·김순옥, 1999). 첫째, 가족과 가족이 모여서 하나의 큰 가족집단을 경험하기 때문에 참여가족간에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시각이 생긴다.

둘째, 자녀의 사회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능케 해 준다. 즉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스스로 참여하거나 활동하여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종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해 나갈 것이며, 가족간의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에 필요한 인간상으로 길러져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족상을 만들어 내는 주역이 될 것이다. 실제 공동체 내에서 집단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집단적 생활에

1)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자세한 실태는 「류경희·김순옥(2000),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권 2호」를 참조하기 바람

2)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된 공동육아협동조합은 <활기찬 어린이집>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정보제공자를 보호하고 사생활의 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제공자 이름도 가명으로 하였다.

의해서 또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에 의해서 관대하고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로 자라게 되며 동료간에 깊은 사랑을 느끼고 혼자 사는 세상보다 함께 어울려 사는 생활에 만족하게 된다(Barette, Michele & Mary McIntosh, 1982; 장정순, 1986 재인용). 또한 공동체 생활이 아이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은 어른들과의 다양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역할 모델을 제공받는다는 점이다(장정순, 1986). 박숙자(1992)의 연구에서도 미취학 아동기의 공동생활경험이 몇 년 후의 아동의 사회적 성숙, 특히 사교성과 공동체 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혼 취업여성 및 소수자녀 가정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개별양육보다는 공동양육이 권장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며, 공동양육이 극단적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자율적이며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셋째, 가족간의 모임을 통해 다른 가족들과 만남으로써 자신의 가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명하여 갈등이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으며,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른 가족집단들과 함께 의논함으로써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해결방안을 합리적 수단을 통해 탐구,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즉 가족의 위기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기 전에 위기를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과 관계를 미리 키워 가는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넷째, 가족간의 모임은 연령별, 학년별 구성이 아니라 세대간의 집단이므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관계형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가족의 부모, 자녀들과 관계함으로써 자신의 부모, 자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 가족은 핵가족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을 가능케 해주며, 그 동안 소원하게 지냈던 이웃이나 사회의 다른 가족들과의 연대감을 갖게 됨으로써 함께 사는 세상임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가족원 사이의 관계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III. 연구방법

가족간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참여가족들이 공동체적인 가족생활의 경험을 단위 핵가족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가

〈표 1〉 정보제공자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99년 9월 당시

정보제공자	연령	성별	학력	직업	남편/부인직업	등원 아동수(나이)	참여기간
김용범	38세	남	대졸	교사	교사	여아3명(3, 3, 6)	96. 3. 18~현재
박현주	32세	여	대졸	전업주부(어린이집 교사)	변호사	여아 1명(6)	96. 3. 6~현재
문영미	36세	여	대졸	전업주부(회사원)	학생(회사원)	여아 2명(4, 7)	96. 3~현재
최숙자	33세	여	대졸	전업주부 (어린이집 교사, 원장)	교사	남아 1명(7)	96. 3~현재
임소영	33세	여	대졸	전업주부 (학원강사, 독서지도)	회사원	남아 2명(4, 7)	96. 3~현재
권미숙	32세	여	대학원졸	전업주부 (시간강사, 잡지사 근무)	대학원생	남아 1명(5)	97. 6. 11~현재
최정환	38세	남	대졸	회사원	회사원	남아 2명(5, 7)	97. 12. 1~현재
박경미	34세	여	대졸	전업주부(회사원)	회사원	남아 1명(6)	98. 1~현재
홍은미	33세	여	대졸	전업주부(교사)	회사원	남아 2명(6, 7)	98. 2. 16~현재

\* 직업에서 ( )는 전의 취업경험이다.

와 같은 가족구성원들의 의미, 해석, 주관적 경험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Daly,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radley의 문화기술(Ethnography)적 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96년 3월에 개원하여 조합원들의 다수가 참여한지 1년 이상 되어 이곳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조합원들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걸어서 20~30분 이내의 근거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이 용이하리라 판단된 <활기찬 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99년 2월 한달 동안 조합원의 인적사항, 참여기간, 이곳 생활에의 몰입 정도, 면접에의 협조 가능성 등을 파악하면서 부부가 모두 있는 가족의 구성원인 9명의 제보자(아버지 2명, 어머니 7명)를 선정하였다. 9명의 제보자들은 공동육아 문화에 철저히 익숙해져 있었고, 현재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며, 면접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고, 비교적 비분석적이어서 문화기술의 정보제공자 선정기준에 부합(Spradley, 1979; Spradley, 1980)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 제보자들은 가족간의 공동체적 생활의 전형성을 보여줄 수 있고, 이곳의 생활을 통해 충분히 가족 안에서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판단되었다. '99년 3월부터 9월에 걸쳐서 심층면접을 하였는데, 면접은 어린이집이나 정보제공자의 집 등에서 4~5차례 이루어졌고, 1회 면접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시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면접 필사본을 만들어 읽어 내려가면서 의미 있는 단어, 구, 절들의 의미론적 관계를 찾으면서 영역을 확인해 나갔으며, 이를 카드에 붙여 정리해 나갔는데, 총 카드 수는 365매이며 총 15개의 영역에 4가지의 의미론적 관계를 발견하였다<sup>3)</sup>.

정보제공자 및 그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IV.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 관계의 변화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이웃관계에서의 변화

가족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족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내재화된다는 것이다. 집단 내 조합원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의 모습은 가족 안에서의 육아, 부부문제, 그 외 가족경험 등과 같은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며, 이로써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기에서의 이웃이란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가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 외 이웃과는 매우 단절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공동체성이 외부로 확산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또 하나의 폐쇄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 1) 조합의 집단 내 이웃과의 삶

###### (1) 함께 하는 육아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는 아이들의 생활과 문제에 부모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 때문에 서로 부모들끼리 아이와 육아관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웃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자녀의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상대방 가족의 육아경험을 간접 경험하게 된다. 다른 가족의 육아방식을 들여다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나의 육아모습도 거리낌없이 개방하며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육아의 모습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서로 상대방의 육아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지적을 받아도 내 아이를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본 조합원이라면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고, 때때로 내 아이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신뢰감이 있어서 기분 나쁘지 않다. 또한 아이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그 고민에 대해 가장

3) 본 자료는 류경희(1999)의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의 면접 자료 중의 일부를 심층 분석한 것임

잘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원에게 거리낌없이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다. 나의 아이에 대한 고민이 절대 흥이 되지 않으며, 함께 고민해 주는 이웃들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힘을 얻는다.

이와 같이 이웃은 바로 육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주는 상담자이자, 지역사회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의 부모이다.

...내 애를 정말 공동으로 키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언제냐면, 내 애에 대한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듣게 되잖아요. 저도 아마하면서, 아마하는 건 그날 하루 어떤 한 방만을 돌보는 건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다른 방 아이들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럼 딱 하나의 행동을 봤을 뿐인데도, 금방 그 아이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거 있고, 또 부모도 아무리 자기 아이에 대해 잘 알지만, 자기 아이가 하루 생활하는 걸 속속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저도 얘기해 주게 되고, 다른 엄마도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미처 못 봤던 거를, 그걸 선생님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다못해 엄마 아빠가 아침저녁으로 들렀을 때 경운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길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애에 대해 몰랐던 걸 알게되니까 좋고... (홍은미)

이웃간에는 마치 한 식구처럼 내 아이, 네 아이를 가리지 않고 우리 아이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으며, 퇴원 후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돌보아 주는 저녁 품앗이, 터전에서의 아마활동을 통해 다수의 아이들에게 부모역할을 해준다.

...정말 터전 사람들 전체가 명철이(첫째 아이)를 다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 대한 고민을 우진이 엄마하고 솔방울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가 결코 어눌하지 않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명철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든 좋은 행동을 하든 개는 거기서 칭찬도 받고, 뭐라 그럴까... 잘못된 부분 고침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인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식근 거 같아요. 근데 내 아이의 그 어눌하고 이런 걸, 다른 데서는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의 친구도, 나중에 "개 어눌한 건 좀 낫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개는 애를 계속 지켜보질 않잖아. 내가 개(친구)한테 오히려 선입견을 딱 심어주는 거죠. 다른

면도 있는데, 그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계속 옆에서 지켜 봐주고 개를 본 사람이랑 그게 다를 거라는 생각이... (임소영)

다른 집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 주었듯이 자신이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조합원 가족에게 부탁할 수 있다. 그리고 편안하게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아 온 가족들은 다른 가족의 부탁을 받았을 때 다른 가족을 도울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오히려 부탁해준 것이 고맙다고 한다. 바로 나에게 부탁할 정도로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가깝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내가 쉽게 부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공동체적인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윤선이나, 명철이나 뭐, 내가 애 봐달라든가, 뭐 사다 달라든가, 병원 같이 가는데 차 대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적에는, 내가 쉽게 요청하는 거 자체가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니까... (최숙자)

조합원 이웃들을 알기 전에는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친척에게 의존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친척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조합원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어떤 바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빠한테 부탁하는 것보다는 조합원한테 부탁하는 게 또 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니지만 평소에 다른 조합원들을 많이 돌봐주고 있거든요(웃음). ... 중략 ... 내가 평소에 잘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오빠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소에 왕래가 없으니까 어려울 때 부탁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문영미)

권미숙씨는 공동육아에 참여하기 전에 친척이나 이웃 없이 혼자 아이 키우는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꼈던 시기는 암흑의 시대였고, 이곳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육아를 통해 핵가족에서 안고 있는 육아

문제를 여러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는 현재는 희망의 시대라고 비유할 정도로 함께 하는 육아에 만족을 표현하였다.

(2) 함께 풀러 가는 부부문제

가족 안에서 일상적이고 사소한 부부문제들은 아이 양육의 문제보다도 다른 가족에게 개방되어지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활기찬 어린이집의 부부들은 서로간에 잘 알고 친밀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을 많이 들여다보고, 반대로 내 가족의 많은 것들을 다른 가족에게 보여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문제가 개방되어진다. 이웃간에는 서로 부부간의 힘든 점과 고민을 함께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서로 잘 아는 조합의 이웃들에게 찾아가 부부관계에서의 속상함을 털어놓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가 있고, 속상함을 털어놓으면서 후련함을 경험하며, 그 자체로 마음이 정화되는 하나의 카타르시스 효과를 맞는다.

다른 가족의 남편한테 아유, 왜 누구 엄마(부인)랑 싸웠냐고 물어보고 (부인에게는) 뭐가 섭섭하대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그런 경우가 쉽진 않을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여기 이렇게 아빠를 알고 엄마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만약에 이웃에 엄마랑만 굉장히 친밀하고 아빠랑은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면 그런 말을 해줄 수도 없죠. 근데 다른 가족의 남편에게도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부인이 이런 면에서) 섭섭하대, 이런 정도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경미)

...내가 화가 나면 만 집 가서 막 푸니까 ... 중략 ... (조합원 이웃들을) 저녁에 만나면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풀고 그래요. 일단 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떠듬으로써... 그것이 일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래 나를 갇아먹는 일은 덜 한다는 거. 그래서 내 상처가 좀 덜 커진다는 거죠.(최숙자).

또 김용범씨의 부부처럼 부부간에 의견대립이 잦은 경우 이웃들이 이것을 곧바로 읽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지는 등의 건의를 하면서 부부를 중재해 준다. 서로 그만큼 잘 알고 가깝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야기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데, 임소영씨를 비롯한 제보자들은 이웃들이 해 주는 조언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바로 이웃은 육아의 상담자일 뿐만 아니라 부부문제의 상담자이기도 하다. 이웃에게 부부문제가 그대로 공개되었을 때 더욱더 건강하게 부부문제를 풀러 가는 힘을 얻게 된다.

또한 이웃과의 친밀한 교류가 가족 안에서의 부부갈등의 화근을 없애주기도 한다. 박현주씨는 변호사로서 바쁜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고 집안 일에 신경 쓸 사이가 없어 남편에 대한 불만과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돌보고 집안 일을 해야 한다는 데서 심한 우울감이나 권태감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그 시간에 다른 조합원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신의 외로움이나 불만을 풀 수 있었고, 자신의 가족생활이 없음을 위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한다.

권미숙씨도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아이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료할 텐데 이곳에서는 다른 집 조합원들 불러다 같이 저녁도 먹고 놀기 때문에 남편이 부재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함께 있어 줄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이웃과 함께 하는 즐거움 때문에 부부관계에서의 불필요한 감정이나 잡념이 끼여들 여지가 없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삶을 찾게 되는 것이다.

(3) 가족경험 공유하기

이곳의 참여 가족들은 일상의 사소함까지도 이웃들과 함께 한다. 의·식·주생활, 취미생활, 여가 보내기, 주말 보내기 등에서 내 가족끼리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다른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이웃을 내 가족과 더불어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다.

이웃간에 가족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처음부터 자

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웃과 거의 교류가 없었던 개별 가족들이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 집단의 장으로 옮겨가게 되는 초기과정에서는 낯선 문화를 접하면서 충격·놀람, 신선함, 신기함 등의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여러 이웃과 함께 하는 데서 오는 피곤함과 신경 쓰임, 번잡스러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참여 초기에 이웃과 함께 하기의 어려움을 느낀 가족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서 차츰 이웃간에 가족경험 공유하기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간다.

조합의 가족들간에는 일상생활을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친척보다도 이웃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최숙자씨를 비롯한 제보자들은 친족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크지 않고 대신 조합의 가족들이 이웃사촌임을 실감하게 되며,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웃과 함께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가족 안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것을 함께 하듯이 조합원 가족들간에도 함께 먹고, 자는 한가족 경험을 종종 한다. 방모임이나 총회, 소위모임, 조합원 교육 등과 같은 공식적 모임, 그리고 비공식적 만남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들이 각자 집에서 재료나 음식들을 가지고 손수 만들고 차려서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지, 간식을 먹는다는지 한다. 함께 대집단이 식사를 하는 것은 딱딱해 질 수 있는 공식적인 모임의 분위기를 가족적으로 친근감 있게 만들어 주며, 중간중간 이어지는 간식도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준다. 함께 먹는다는 행위를 통해 만남의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지고, 친밀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며, 훈훈한 인간관계를 느낄 수 있다.

가족끼리 식사할 때보다 다른 이웃하고 함께 식사를 할 때 더 맛있고(웃음),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못하는 게 결국 애들 때문이잖아요. 애들 막 난리 치는데 그거를 이해 못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또래끼리 만나게 되는데, 사실 더 어렸을 때는, 애들이 서로 어리면 잘 못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애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건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집에 가서 흘려도 다 이해해주고 뭐, 내 애들처럼 서로 닦아주고 치

워주고 그러는 게, 편안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먹을 때도 뭐, 누구네 집 전화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저도 좀 그런 거 같고... (문영미)

한편,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자는 것도 가족간에 편안한 가족적 체험을 하게 한다. 홍은미씨는 함께 잔 경험을 통하여 서로의 벽이 더 쉽게 벗겨졌다는데서 후련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친밀감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다른 조합원의 집도 부담 없이 편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다른 집에 자러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집 아이를 내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울 수도 있다. 다른 집 부모가 내 아이들을 재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자신도 다른 집 아이를 재울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임소영씨네 처럼 집의 열쇠가 고장나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 집보다 가까이 사는 조합원 집에서 함께 자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고 좋다고 할 정도로 다른 조합원의 주거공간도 이들에게는 서로 서로에게 친숙한 공간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옷이나 물품도 이웃간에 서로 나눠쓰고, 바꿔쓰고, 물려받고 물려준다. 어떤 경우에는 친척들보다도 가까이 사는 친밀한 이웃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

...애들 옷을 물려 입고 물려받고 윤명이는 영은이한테 물려받고 윤명이 옷은 소영이한테 주고. 뭐 이런 식. 그 전에는 경찬이한테 신발을 엄청 많이 얻어 신었어요. 경찬이네 할머니가 신발을 엄청 많이 사주셔서 가지고 한 두 번째 신어본 신발, 다 물려받고... (문영미)

그리고 예전에는 내 가족끼리만 주말과 여가를 보내는 것을 당연시하였는데, 지금은 이웃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가족원 중 누가 빠진 것처럼 허전하고 심심해진다고 한다. 조합의 이웃들과 함께 주말이나 여가를 보낼 때 삶이 더 풍부해지는 경험을 한다.

작년 여름에는 저희가 이제 태안반도 해수욕장 쪽으로 저희 집에서 이제 놀러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가 해수욕장이 좀 좋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시간 되는 사람들은 저희는 3박 4일 있었고 시간 되는 사람은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칠환네가 와



서 2박 3일 있다 가고 또 한 두 집인가 세 집이 와 가지고 1박 2일 하룻밤을 자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저희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도 여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놀 때만큼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신나고 재미있는 경우가 없어서 인제 어딜 가더라도 같이 풀려다니면서 놀기를 계획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에도 그래서 참 좋았어요. ... (중략) ...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다는 게 그게 놀이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 곧 놀이가 되니까 모여서 뭐 밥먹는 거 해결하고 또 아이들은 놀아야 되니까 그냥 모여 있으면 아이들끼리 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나 혼자 집에서 하느니 인제 모여서 하면 더 재미있다 뭐 그런 식으로... (문영미)

현대의 가족은 주말이나 여가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몰라 더 무기력한 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가족단위로 함께 보내기보다 가족구성원 뿔뿔이 나뉘도록 주말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가족단위로 다른 이웃과 함께 주말과 여가를 보낼 때 생활에 더욱 충실하게 되고 질적인 시간을 공유하게 되면서 삶의 행복감과 충만감을 갖게 된다.

(4)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가족들

다른 가족과의 생활을 통해 조합의 가족들은 서로 서로 상대 가족에게 하나의 준거 집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웃의 가족 분위기, 가족상, 생활 스타일 등을 알게 되면서 내 가족 생활의 모델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가족의 생활방식을 배우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면서 나의 가족생활의 모습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사람들 좋으면 금방 따라 하잖아요. 어느 가족이 어디 가니까 가족끼리 놀러가니까 참 좋더라, 이러면 나도 거기 꼭 가봐야지. 뭐 이런 거. 어느 가족이 좋은 취미를 가져서 뭐 애들한테 이렇게 해준다.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내가 닮고 싶다고 보는 구체적인 세세한 부분들 많이 배워 가는 거 같아요. 습득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같아요. (권미숙)

한편, 어떤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나의 가족엔 가족문화가 없었다는 인식을 하기도 한다. 생업에 바쁘고, 아이 키우는데 허덕이느라 가족끼리 함께 무엇인가를 한 경험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가족끼리 함께 하는 문화에 차츰 젖어들게 된다.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어려웠던 권미숙씨도 남편이 이곳에서 다른 가족들이 아이 키우며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의식,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 하려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기철이 아빠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다 전부 총각이었어요. 그러가지고 문화가 왜 총각들 문화인 거예요. 막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밤늦게도 친구들이 막 전화하고, 식구들끼리 모이는 문화가 없었어요. 어디 모임에 나가도 자기 혼자 나가서 늦게까지 놀다 오고, 처음 결혼해서 그런 걸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기철이 아빠가 요즘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도 결혼을 해서 뭐 임신을 하고 뭐 이런 상태고, 그리고 또 인제 어린이집 생활에 젖어 있으니까 다들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니까 점점 인제 그런 분위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저한테 친구 집들이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게 우습게 들리겠지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기철이 아빠 자기 혼자 가지 내가 거기, "혹시 나도 가면 안돼?", 뭐 이렇게 해서 기철이 데리고 쫓아간 다거나 했지 기철이 아빠가 먼저 자기 친구들 모이는데 같이 가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권미숙)

홍은미씨는 부부가 함께 미술관에 다니는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명운이네를 참 부러워한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가족과 함께 해서 좋았던 경험을 자주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게 되었는데, 결국 남편도 어느 사이인가 일요일날 "인사동에 가자"하면서 가족단위의 문화생활을 스스로 제안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김용범씨는 가족간의 개방적이고 전면적이고 친밀한 교류에서는 가족생활 자체가 공개되기 때문에 내 가족 안과 밖에서 내 가족의 이중적인 부분들이 많이 지양되고 줄어들어 스스로도 불쾌감이 많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가족간에 함께 하는 삶을 통해 가족들간에도 어느 정도 생각의 평준화,

문화의 평준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즉 지나치게 다른 가족의 문화를 갖고 있거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중점을 찾아오기 때문에 생각이나 문화가 비슷하게 되어 가기도 한다.

## 2) 조합의 집단 외 이웃과의 삶

### (1) 집단 외 이웃과의 관계 욕구의 부재

집단 내 이웃간의 밀접한 교류와 상호 의존성은 집단 외 이웃들과 거의 단절된 삶을 살게 한다. 퇴원 후에도 이어지는 저녁 마실가기, 주말과 여가 함께 보내기 등 집단 내 이웃과의 빈번한 교류와 관계의 욕구 충족은 집단 외 이웃과는 교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며, 관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또한 가족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집단 내 이웃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집단 외 이웃을 사귄 가족적 필요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뭐 거의 이웃들 사귄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친해요. 그래서 더 안 사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동육아 하기) 전에는 심심해서 막 전화하고 마실 다닐 때 찾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욕구가 여기서는 충족이 되니까 이웃들(조합원 아닌 동네 이웃들)을 특별히 뭐 의식하지도 않고 신경쓰지도 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권미숙)

그래서 집단 외의 다른 이웃들과 교류하는 것을 보고 '능력 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의 가족들은 집단 내 이웃이 아니면 아는 이웃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제가 얼마 전부터 미용 같이 배우던 엄마들하고 산을 오르거든요. 그때 오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느낀 게 제가 누구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다 어린이집 엄마, 아빠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여기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엄마들에게 미용하는 아줌마들이랑 등산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와 능력 있다 나는 여기 어린이집 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별로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스

콜라 선생님이 조합원 교육 때 사람들이 아이를 맡길 때가 없다고 걱정하자 동네 이웃은 안 사귀고 뭐하나 조합원들끼리 서로 너무 친하게 지내서 이웃 사촌들한테 무심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셨대요. (홍은미)

### (2) 집단 외 이웃과의 차별화 인식

공동육아에의 참여 가족들은 집단에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집단 내의 이웃들과 집단 외의 이웃들간의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해 나간다. 즉 집단 외의 이웃들과는 육아관이 다르고, 교류하는 가족구성원이 다르며, 공유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집단 외의 이웃들과는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육아 이념에 바탕을 둔 자신의 육아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다. 또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지적이나 조언도 하기 어려우며, 아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을 진실하게 내보여주는 친밀한 관계형성이 어렵다. 그래서 집단 외의 이웃과는 피상적인 접촉을 하게 되고, 우연히 마주칠 때는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정도로 된다.

...이웃들은 전혀 몰라요. 답을 쌓고 지내죠. 여기 와서 이 정도인데 여기 이웃들(조합원 이웃)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비슷하긴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조합원 아닌 이웃들과는) 육아문제에 있어서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다. 그러니깐 사람들(조합원 아닌 이웃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별로 듣고 싶지 않다 하니까 멀어지는 것 같아요. (박경미)

이러한 집단 내, 외 이웃들간의 차이의 인식으로 집단 내의 이웃들은 집단 외의 이웃들과는 다르다는 차별화를 하게 되면서 집단만의 독특한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간혹 종교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이웃과도 교류하기는 하나, 그 가족의 개별 구성원간의 제한적인 만남이라 빈번한 교류가 생기기 어렵고, 집단 내 이웃은 육아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비롯하여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으나, 집단

외 이웃들과는 공유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며, 공유의 정도도 약해서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끈이 없다.

...동네에 있는 사람도 친한 사람은 마찬가지로이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를 매개로 만났다는 점에서 다를 수 있죠. 여기선 공동주제가 분명하니까. 이것이 서로를 가깝게 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최정환)

(3) 집단 외 이웃으로부터의 배타적 시각

집단 내 이웃은 집단 외 이웃으로부터의 배타적인 시각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아이를 기존 유치원이 아닌 공동육아에 보낸다는 것 때문에 집단 외 이웃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느끼며, 편견을 가지고 둔 있고, 극성스런 엄마들의 유별난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을 힘겨워한다.

나는 거기 구단지에 살던 조합원들이 다 이사가고 나서 한달 뒤에 나도 이사가겠다고 결정한 게 거기서 이웃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좀 다른 데에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우리 애가 따돌림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엄마는 기존 유치원이 아니라 다른데 보내는 엄마. 그리고 맨 날 수군수군하고 좀 그러는 거 같더라구. 근데 그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삼단지로 이사와서도 "애 어디 보내세요" 이러는데 "공동육아..." 이게 안 나오고 "예, 애 저기 어린이집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 볼 때 뭔가 알부잔 것 같고, 유난 떠는 엄마 치맛바람 뛰 이런 식으로 보는 거 같아요. (임소영)

따라서 참여가족들은 집단 내에서 이들간에 '우리'라는 강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 외 '우리' 이외의 관계에서는 '우리와는 색깔이 다른 사람, 가족, 이웃'이라는 배타적인 관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집단 내, 외 이웃간의 닫힌 구조에서는 집단 내 가족들간에 더욱 결속하게 하며, 그들간의 결속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단 외 이웃들과는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개별 가족 안에서는 집단 외 이웃과 거의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집단 차원에서는 대 지역사회로의 공동체성의 확산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집단차원에서 대 지역사

회와의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하기도 한다. 즉 지역사회에 공동육아를 알리기 위해 공동육아 설명회를 지역주민 대상으로 개최하기도 하고, 개원기념행사 등에 지역주민을 초청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열어놓기도 한다. 그러나 대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성 형성노력의 출발도 사실상은 지역사회에서 민원이나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터전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친교가 중요하다는 집단의 이기성 내지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다. 대 사회와의 교류에 대한 인식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든 집단차원에서는 지역 친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참여가족들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은 그다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이웃들과의 교류가 없는 집단 내 이웃간의 끈끈한 교류가 자칫 '우리'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집단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이 외부로 확산, 승화되지 않으면 폐쇄성이라는 공동체의 자체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2. 가족관계에서의 변화

1) 부부관계에서의 변화

(1) 육아문제 공유

터전에서는 남녀간의 역할 구분이나 차별이 없다. 부부가 함께 육아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족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육아 문제를 공유하게 된다.

기존의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이나, 공동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의 경우 자녀 교육은 대부분 부인한테 맡겨져서 어느 어린이집, 어느 학원을 보내든 부인 혼자 결정하고 남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곳은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부부가 같이 키운다는 부분이 강조된다. 엄마가 터전 일을 하게 되면 아빠들이 아이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들의 참여가 불가피하고, 또 남편들도 터전에서 아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도 함께 아이를 양육해 본다는 것에 후련해 하면서도 공평하다는 생각을 한다.

...경은 아빠도 아바 한 적 한번 있었거든요. 그 때 저는 막 감정이 너무, 기특하면서도 막 후련하면서 (웃음) 아바를 했다는 거, 그 상징적인 행동 하나만 갖고도, '아, 난 대단해. 운이 좋은 사람인 거 같애.' 이러면서, '이렇게 아바까지 하다니...' 그러면서 또 그 날 아바 하던 날 다른 집에 갔었대요. 낮에, 나들이 대신. 근데 그 엄마가 경은 아빠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저는 뭐, 별로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아바 해 가지고 그렇게 애들을 잘 보살펴 주다니... 그런 얘기를 제 삼자한테 듣는 기분도 뭐 괜찮더라고요. 정말 아바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직도 어떤 집은 '아바만큼은 안돼' 이런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부러 휴가 하루 내서 하더라고요. 아바한 것 가지고 제가 그거, 뭐라 그랬지? 후련하다는 말 갖고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공평하게 한다는 듯한 그런, 밀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공동육아 하기 전에는 그런 일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홍은미)

또 아빠들끼리 주말에 모여서 놀거나, 텃밭에 김을 매려 간다든지, 잡초 뽑고 쉬어주러 갈 때는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엄마들끼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울리는 것처럼 아빠들끼리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어울린다. 보통의 경우에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묶여 꼼짝도 못하는데,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줄 때는 엄마들이 혼자서 자기 시간을 갖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곳의 남편들은 다른 집의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기도 하고, 아빠들끼리 만나서 주로 터전의 운영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육아에 관심을 갖는다.

...그냥 다른 아빠들 사는 모습, 그리고 뭐 아이들 키우는 모습, 다른 집 사정 같은 것 있잖아요. 왜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듣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폭이 넓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다른 사

람도 이렇게 사는구나. 어떤 평범하게 사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알기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기척이 아빠가 느끼고 와서 저한테 그 집은 요즘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전 좋게 생각하죠. (권미숙)

이와 같이 남편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증가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는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행동을 이끌어 낸다. 그래서 최정환씨에 의하면 터전에서는 아빠로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므로 이제는 "아빠들이 웬만큼 잘 해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민다"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 할 정도라 한다.

결국은 부부가 함께 육아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엄마들은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육아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2) 남편의 가사노동에의 참여

이곳에서는 남자가 집안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그것은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조합원들 다수의 잦대이기 때문에 남편의 가사노동에의 참여가 지지 받는다. 김용범씨 같은 조합원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남녀 역할을 구분 지었던 자신의 모습이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객관적인 파악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기도 한다.

부부가 함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가족이 자연스럽게 공개되면서 남편들도 알게 모르게 마치 자취하는 학생이 자연스럽게 밥을 해 먹듯이 자연스럽게 집안 일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최정환씨는 가사노동에의 참여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다.

실제로 임소영씨나 문영미씨의 남편처럼 공동육아에 참여하기 전에는 집안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터전에서 아빠들이 청소와 설거지 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서 평소에 하지 않던 이불을 깎다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터전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남편의 가사노동에의 참여는 부부간에 평등의식을 심어주

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평등의 역할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 2)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변화

### (1) 부모역할 배우기

집에서는 아이들이 잘못을 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큰 소리로 야단치고 욕박지르고 내 아이에게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터전이란 장소에서만큼은 아이에게 그렇게 대하는 어른들이 없다. 아이들을 존중해 주고 먼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며,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준다. 그래서 터전이라는 장소에 있을 때는 부모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터전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보통 아이들 대할 때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고 야단치고 욕박지르고 이러는 데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을 보면 다른 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대해선 안되고, 집에선 내 아이한테 막 하지만 거기 가선 내 아이한테 막 할 수가 없고 다른 아이한테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런 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누그러지고 아이들 편에서 이해를 하는 쪽으로 행동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한 달하고 열흘인가 그 정도 어린이집에서 보육 일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집에서 하던 식대로 아이들 보면 뭐 하지 마, 소리를 먼저 지르게 되고 제지를 하거나 야단을 치려고 먼저 했는데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도, 저는 그래도 선생님이지 아니고 조합원이고 부모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생각을 바닥에 깔고 몇 시간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겠지. 근데 인제 거기 왔다갔다하면서 아이들 돌보는 책자를 읽어보거나 선생님들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내가 부모지만 여기 와서 애들 보는 동안은 선생님들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의식적으로 아이들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문영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혼자의 반성과 점검만으로는 힘들고, 터전과 같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의 분위기가 자체로 나에게 강조될 때 부모로서 변화하려는 힘을 얻게 된다.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생각이 많아도 방법을 몰라서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터전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다. 다른 가족과 함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많이 하고, 이곳에서 교사나 다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좋은 아빠가 진짜 되고 싶었어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평소에 많이 갖고 있었던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하나의 생활적인 것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배운 것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빠가 되고싶다 그래도 방법론을 몰라 갖고 못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아들놈이 막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성질 나서 이렇게 대응하고 아 이런 게 잘못됐구나, 예를 든다면 여기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육방침에서 선생님들이 애를 다루는 모습이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 이런 것이 쪽 나오면은 그런 거를 보고 많이 배우지요. 그런 정도 방법론적인 부분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최정환)

또한 터전에서는 다른 부모들의 다양한 양육형태를 맛보기 때문에 아이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해 보기도 하면서 성숙한 부모들의 양육형태를 나름대로 부모 역할의 모델로 삼게 된다. 권미숙씨를 비롯한 제보자들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참여하기 전에는 아이의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나의 감정대로 행동하기도 하였지만, 성숙한 부모들이 아이를 한 인격체로 보고, 권위로 제압하지 않으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고, 아이가 생활하는 과정이나, 아이가 가진 생명력을 존중하게 되었으며, 아이 중심의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대하는 터전에서의 방식대로 집에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 (2) 부모-자녀의 지나친 의존관계 탈피

박경미씨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참여하기 전에는 아이와 엄마의 밀착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풀게 됨으로써,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자괴감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공동육아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는 아이와의 지나친 의존관계에서 탈피하여 아이와 부딪히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

또한 입소영씨를 비롯한 제보자들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집착이나 지나친 기대나 생각들을 자제하고, 조절하게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정말 원하여 농사를 짓는 농부의 직업을 선택해도 그것을 즐기면서 할 수 있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꺼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모로 변했다고 한다.

한편, 부모와 자식간의 밀착관계에서는 아이의 모습이나 자신의 양육방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기 어렵다. 터전에서는 내 아이를 다른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지켜봐 주기 때문에 내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내 아이의 문제를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 내 아이의 모습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아이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줄여 들게 한다.

...다른 때는 그 동안 동네 애들을 잠시 본다가거나 친구네 아이들을 친구를 통해서 얘기 듣는다거나 가서 만나질 보거나 하면서 제가 책으로는 보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저의 애를. 그런데 여기에서 또래집단을 계속 지켜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들이를 간다가나 아마 활동하면서 명운이를 객관적으로 내 아이이지만 멀리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아이들은 좀 다 비슷하구나 하는 위안도 갖게 되고 그리고 모르면 초조해 하잖아요. 초조해 하고 그랬었는데 느긋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명운이에 대해서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는 불안, 초조감이 컸거든요. (박경미)

## V. 결론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웃관계에서는 조합 집단 내 이웃과 육아 및 부부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그 외 먹고 자는 등의 가족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건강한 가족단위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반면, 조합 집단 외 이웃과는 관계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며, 차별화하고 있고, 집단 외 이웃으로부터 배타적 시각을 인식하는 등의 변화 경험을 하고 있어서 조합 집단 내, 외간에 뚜렷한 대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족 관계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육아문제를 공유하고, 남편이 가사노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며, 부모자녀관계에서는 평등한 부모자녀관계를 연습하게 되고 부모자녀간의 지나친 의존관계에서 탈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들 참여 가족들은 집단 외 이웃과의 단절된 삶을 제외하고는 참여가족들간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서 이웃, 가족 관계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인식은 제보자들이 공동육아에 철저히 문화화 되어 있고, 집단에 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어서 가족간의 공동체적 생활의 전형성을 잘 보여줄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자 가족들이 집단 내, 집단 외 이웃들과 차별화된 교류를 하는 것을 볼 때, 집단 내 가족들간의 공동체성이 단단하게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집단 밖의 외부 가족들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외부 사회와는 더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외의 이웃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우리끼리' 공동체가 오히려 공동체의 폐쇄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이들 가족들은 내부에서의 그들간의 공동체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집단 내부의 공동체 생활이 잘 형성되고 나서야, 집단 밖의 외부 사회와의 공동체 생활도 형성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단 밖의 더 넓은 사회적 관계로 확대되어지는 공동체 생활은 어렵다

고 보여지며, 공동체 생활의 외부로의 확산은 이들 집단이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보여진다. 또한 더 큰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공동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외부 사회의 가족들과 집단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틈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실천 노력이 없다면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육아에 대한 하나의 실험집단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의 긍정적인 유지는 바로 지역사회와 전체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이 스스로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편협한 태도를 버리고 더욱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애정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신용하, 장경섭, 1996). 그러므로 지역사회와의 친밀한 교류를 위한 친구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로 조합원이 아닌 이웃과도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모색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연구결과 집단 외 이웃과의 공동체성 형성 노력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참여 가족들간의 공동체적인 삶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가족의 일상적 삶에 집중하게 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가족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고, 가족에 더욱더 충실하게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는 충만감과 행복감은 나아가 가족의 새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며, 가족간의 공동체적 생활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 평등한 인간관계를 모색하게 하는데, 특히 평등한 인간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가족간의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인간상으로 길러져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족상을 만들어 내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밝은 기대를 하게 한다.

앞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기존에 가족이 갖고 있는 지위부여나 '도구적 기능' 보다는 삶의 양식을 함께 누리는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의미를 더욱 중요시하면서(조은, 1999),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같이 자녀양육이라는 가족기능을 공공화 하고 가족간의 연대를 통해 가족과 사회의 중간집단이라는 자생적인 집단을 창출

해 나가는(정병호, 1996) 공동체 가족의 모델을 개발해내고 실천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 공동육아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서 공동육아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는 경제, 가사노동, 가족관계 등의 생활영역과 가족친밀도, 응집성, 의사소통, 의사결정 등의 개념영역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가족생활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육아 외의 다양한 주제로 생겨난 가족간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연구 및 그러한 생활이 가족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가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류경희(1999).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경희, 김순옥(1999). 한국의 공동체 가족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93-221.
- 류경희, 김순옥(2000).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19-151.
- 류경희, 김순옥(2001).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과정. 대한가정학회지, 39(3), 107-133.
- 박숙자(1992). 미취학아동기의 공동생활경험과 사회적 성숙. 한국사회학 제26집 여름호, 145-165.
- 신용하, 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합리적 공동체로서의 한국형 가족모델. 서울: 지식산업사.
- 이부미(1999). '공동육아' 문화의 교육적 해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호(1998).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의 참여과정과 집단정체성의 형성-한 조합형 어린이집의

-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우연(1995).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부모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신촌, 청주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정순(1986). 생활공동체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병호(1996). 미래지향적 사회조직과 가족문화. 백완기. 신유조 공저. 문화와 국가 경쟁력. 서울: 박영사, 459-501.
- 조순영(1998).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생활사에 대한 질적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1999). 가족제도의 운명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창작과 비평 103호, 45-61.
- 차현진(1997). 공동육아 어린이집 나들이 활동의 교육적 의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송이(1997). 새로운 보육형태인 '공동육아'에 관한 연구-공동육아 부모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aly, Kerry (1992). The Fit Between Qualitative Research and Characteristics of Families. In Jane F. Gilgun, Kerry Daly & Gerald Handel (eds). *Qualitative Methods in Family Research*. Sage Publications.
- Spradley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Spradley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이희봉 역 (1996),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